



## 看護員의 司牧活動

성모병원 간호과 이 스페리따 수녀

오늘 이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이러한 司牧活動에 看護員 모두가 그리스찬적 사랑에 參與할 수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生覺합니다.

歷史는 切實히 善과 眞理를 追究하여왔고 現在도 未來에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밝혀 주는 것이 바로 우리 醫療인들의 課題라 生覺합니다. 여기에 對한 方法은 각가지로 自然科學이 發展함에 따라 細分化 되어지고 있습니다. 現在에는 그만큼 하나의 일이 立體的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用語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領域안에서 우리도 하나의 一員으로 看護라는 專門分野에서 自己人生的 價値를 찾으며 또 여기에 온 熱誠을 바치고 있습니다.

가톨릭病院이 완전한 病院으로써 機能을 發揮하려면 거기에는 醫學과 技術도 물론 必要하겠고 그에반하여 精神的治療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도 必要합니다. 우리가 病院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方法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한마디로 對人關係에서 相對方에게 줄 수 있는 것일겁니다. 病院社會의 주인은 患者입니다. 우리 看護員들과 患者와의 關係는 24時間 그들 곁에서 지내는만큼 病院社會의 그 어느누구 보다도 밀접합니다. 그들의 肉體的 精神的 苦痛을 직접 곁에서 觀察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任務인 만큼 영신적 간호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베풀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司牧活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人間은 날때부터 社會性을 띠고 있기에 혼자서는 活動할 수 없는 것입니다. 現代에는 신경성으

로 오는 여러가지 병이 많읍니다. 우리의 業務上 여러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누구나 여러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누구나 여러사람을 대하는 職業에 從事하면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서 일종의 嫌惡感和 窒息感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친절한 언사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不親切이란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일은 價値를 附與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對人關係를 원만히 해야합니다. 이 대인관계에 대해 哲學的으로 考察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現代인들의 思想을 支配하고 있는 哲學은 實存主義라 볼 수 있습니다. 實存主義란 對人關係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現社會에서 人間이란 일종의 機械에 불과한 것입니다. 自己가 從事하는 일에 쫓기다보면 이러한 現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主體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社會는 여러 사람들이 生活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生命이 없으며 人間の 存在價値도 없을뿐더러 人生的 아무런 意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일의 能率도 떨어지며 壽命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脫皮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열기를 기다리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취해야할 態度가 아니며 더우기 그리스찬 사람의 본보기도 아닙니다. 相對方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면 서로의 마음의 相通은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인 患者는 우리에게서 새로운 무엇을 느끼며 우리가 하는 일에 積極協力할 줄로 믿읍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司牧活動일 것입니다. 마음의 相通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哲學用語를 빌어 相對方을 내안에 現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대상을 客觀的으로 考察의 對相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機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人間으로써 診察을 받고 싶은 것이 機械로써 取扱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客體化하려는 우리 業務상의 習慣에 抵抗하기 위해서는 相對方과의 人間的關係를 다시 意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作用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찬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만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실현시켜주는 有一한 要因일 것입니다. 그리스찬 사랑은 그 概念부터 客體化될 수 없는 것이며 그 本質自體가 主觀相互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하였지만 이 사랑이 實現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司牧活動이 활발히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자기마음에 相對方을 招請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相對方도 그리스찬 사랑에 흡수되고 싶어 또 自己 存在價値를 얻고져 이 招請에 응할 것입니다. 이 招請은 진실로 謙遜과 회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이 일에 지치고 또 個人的 問題로 神經이 곤두서 있을때에 患者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과 인내와 희생뿐입니다. 이것을 베풀었을때 우리들의 司牧活動의 價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가톨릭에서 말하는 神의 恩寵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對人關係의 必要性을 느꼈으리라 믿읍니다. 하나의 些少한 일로 우리의 일이 헛수고로 변하며 아무런 價値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해 厭惡感과 窒息感을 느꼈을지라도 희생심을 發揮하여 相對方患者에게 나쁜 影響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看護員 自身들이 그리스찬 사랑을 가지고 親切히 대할때 患者는 거기에 대해 微笑와 讚辭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일은 한결 수월해 지며 看護라는 일에 趣味가 생기며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아울러 相對方도 看護員을 존경할 것이며 일을 遂行할 때 患者는 거기에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예를들어 說明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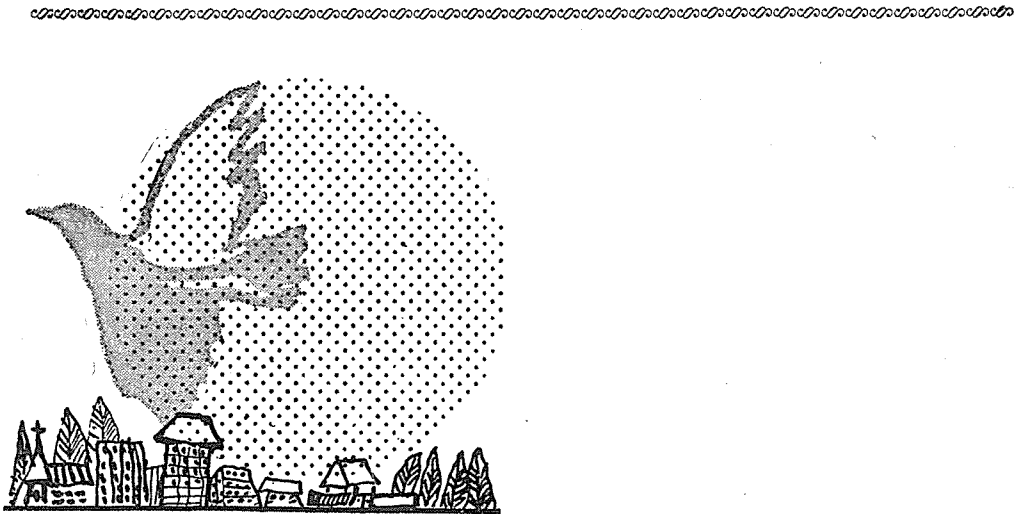
看護란 兩面으로 수고해야 하므로 그리스쉬운일은 아닙니다. 한쪽으로는 患者의 肉體的苦痛도 덜어 주어야 하며 동시에 精神的苦痛도 덜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人間은 약할때 심리적으로 더 의지하려는 傾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無視할때 우리의 看護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精神的苦痛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肉體的인苦痛 때문에 남의 도움을 必要로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의 人格體로써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患者에게 언짢은 言辭를 썼을때 患者가 느끼는 감정이란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의 고통에 대해 위로와 용기를 주지 못할때 그 患者는 실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 실망이 극도에 달하게 될때는 자살이라는 것이 나올 傾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커다란 불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때 그리스찬 사랑이란 그들에게 위로와 勇氣를 주며 우리와 同一時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看護員 우리들이 行하여야 할 司牧活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患者들의 體溫을 게려간다 또는 주사를 놓으러 간다. 또는 투약하러 간다 할때 아무 생각없이 患者病室에 우리들이 들어갈때가 많을 것이며 단지 업무를 遂行하려는 責任과 義務感만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生覺하기에 우리의 業務를 遂行한 것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努力하면 더 좋은 司牧의 結實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生覺이 아닐까요? 아무리 肉體的 苦痛만을 덜어주어도 그들과의 人間關係를 무시 했을때 그것은 돌위에 씨를 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돌위에 씨를 뿌리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業務上에서 오는 習慣때문에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돌위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無患心을 없애기 위해 약간의 그리스찬 사랑만 있더라도 이 無患心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일은 활기가 있을 것이며 본래 애덕이 숭고하듯이 거기에는 무한한 價値가 附與될 것이라 믿읍니다. 우리들이 對하는 사람은 觀者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그리스찬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親切히 맞이 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司牧活動은 어떻게 보면 廣範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司牧活動의 結實은 無限히 클 것이며 그 영향이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現 가톨릭敎會에서도 看護員 우리들의 司牧活動의 必要性을 이제야 느끼시는 것은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하면 病院에 더 많은 價値를 부여할 것입니다. 물론 敎會에 나가지 않는 看護員도 계시겠지만 이 活動은 신자와 비신자를 떠나서 하나의 人間 眞理를 追究하고 善을 찾는 人間으로써 마땅히 하여야 할 우리의 일이라고 봅니다.

위에서도 말하였지만 看護員과 患者와의 관계에서 베푸는 그리스찬적 사랑은 어느 누구가 베푸는 사랑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며 그 影響은 말할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들이 맡게되는 患者들은 人間象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환희의 순간에서 육신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임종의 순간까지 또한 그들의 개개인적인 苦痛을 어떻게 表現할 수 있겠습니까? 귀여운 새 生命을 갖게되는 어버이에게 그아가를 얻게된 감사는 유아영세를 通하여 가톨릭 病院에서 얻은 태유의 감사는 입교를 通하여

마지막 임종의 苦痛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기꺼운 마음은 대세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우리의 힘은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있다고 자부합니다. 극히 조그마한 기회가 될찌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습니다. 看護員 우리들은 나이팅게일의 犧牲과 奉仕精神을 토대로 참된 그리스찬 생활을 깨달아 患者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을 위해 인간적으로 純粹히 사랑을 베풀수있는 白衣의 天使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患者들도 우리들이 모범된 行動을 할때 우리들의 誠意에 뜨거운 聲援을 보낼 것이며 우리들의 存在를 다시 한번 生覺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看護員 우리들의 行動이 司牧의 活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 行動이 患者들에게 깊은 影響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 지구와  
함께 상실되는 일이 없다.

<西洋名言>